

# 은행과 카드사 고금리 장사 '눈살'

## NH농협·씨티은행, 현금서비스 금리 법정 최고 수준 육박

저금리 위증에도 은행카드들은 물론 전업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단기카드 대출) 금리를 28%대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반축을 사고 있다.

특히 NH농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여전히 법정 최고 수준(27.9%)과 거의 격차가 없는 27%대로 유지하고 있다.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업을 영위하는 19개 금융사(시중지방은행 11개, 전업카드사 8개)의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 평균은 25.9%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 금리와 불과 약 2% 포인트 차다.

19개사 중 11개사의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가 평균치보다 높았다. SC제일은행과 전북은행 등 3개사는 평균치에 걸친 25.9%로 설정했다. 14개 금융사가 최고 금리를 평균치 이상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의 최고 금리는 27.4%다. 씨티은행의 최고 금리도 27.3%로

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27%대를 나타냈다. 전업 카드사 중에서는 하나카드의 금리가 가장 높았다. 하나카드의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는 26.9%다.

이어 KB국민카드(26.5%)와 현대카드(26.5%), 롯데카드(26.49%)와 우리카드(26.5%) 등도 28%대를 보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저금리로 자금 조달비용이 떨어지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여전히 고금리 대출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대비 카드대출 수익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는 지난 2분기 차입금 이자와 사채 이자 사용은 4052억원이었다. 이 돈을 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활용해 얻은 이익은 1조798억원에 이른다. 조달비용 대비 카드대출 순수익 비율이 166.47%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25.98%)보다 수익

률이 40.51%포인트 올라갔다.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의 대출 수익률 증가폭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 당국과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3월 이후 대출 금리 조정에 인색하다. 3월은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져, 금융사들이 올해 겨자깍기로 금리를 내렸던 시기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신한금융지주 계열 제주은행 등은 지난 3월 이후 단 한 번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카드사에서는 하나카드와 우리카드의 금리가 3월 이후 유지부등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간의 경쟁 심화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불거진 수익성 악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인재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건이.강이봉사단은 지난 12일 아름다운가게 모래내점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가졌다.

## 건보 전주북부, 아름다운가게와 봉사활동

### 도서 800여권 비롯 의류 생활용품 등 700여점 기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건이.강이봉사단은 지난 12일 아름다운가게 모래내점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도서 800여권을 비롯한 의류 및 생활용품 등 700여점을 기증하고 행사 당일 전시 및 판매에도

직접 참여했다. 건보 김왕수 전주북부지사는 아름다운가게 측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봉사단은 지속적인 선행 실천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주위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전북 우수관광상품 브랜드 중 소비재전

### 도내 8개 업체의 관광상품 브랜드 전시하고 돌아와

전북의 우수 관광 상품 브랜드들이 중국 소비재전 행사에 전시돼 현지인들을 매료시키고 돌아왔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프리미엄 생활소비재전(Stylish Life China 2016)'에 참가해 도내 8개 업체의 관광상품 브랜드를 전시하고 돌아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중국 국제프리미엄 생활 소비재전'은 쓰촨성의 소비 특성에 맞춰 리빙 디자인, 웨딩&뷰티, 패션, 베이비&키즈, 식음료, 프랜차이즈&유통 등 프리미엄 소비재를 중심으로 총 10개국 717개사가 988부스 규모로 참가했으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산업지원센터 디자인개발실에서 1개 부스를 얻어 8개 업체의 관광상품 브랜드를 전시했다.

이번 소비재전에 전시된 상품은 강동오케익(꽃심), 예담공예(한지공예인형), 비딤(LED스탠드), 온고을한지(민화한지노트), 온프로젝트(기린공 개리터), 이너디자인(디딤이),

한국이야기(태권도트러프), 오칠구칠(웃칠금박 핸드백) 등 모두 8개 업체의 상품이다.

박람회장을 찾은 중국 현지인들은 오칠구칠에서 개발한 웃칠한지금박 핸드백을 보고 표면의 독특한 감성과 금박의 고급스러움에 흥미를 보였다.

또한 한지인형, 태권도트러프 등 전시기간 내내 제품들에 대한 구입 문의도 이어졌다.

특히 바이어인 텐진민텍 수출유한책임회사 부사장은 "다나무 추출물로 만든 닥트리아토티진정 미스트 상품에 관심을 가지며 수출 물량에 대한 논의를 나누기도 했다."

소비재전 참가 인솔자인 디자인개발실 권형진 연구원은 "이번 행사 참가는 전북의 우수한 관광상품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해외 시장 진출 계기의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 전시 뿐 아니라 실제 바이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약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업체 역량을 키워나가는 등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농진청, 대학과 공동으로 키레놀의 혈관이완효과 최초로 밝혀

농촌진흥청은 국화과에 속하는 '털진득찰'로부터 분리한 키레놀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등의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전임상(동물실험)연구를 통해 최초로 밝혔다.

그동안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능 연구구스와 가톨릭대학교 의학과 박병근 교수팀이 공동으로 털진득찰의 키레놀의 효능 연구를 진행했다.

털진득찰은 한의학에서 선경허형(腺糖稀)으로 불리며 고혈압, 두통, 어지럼증 및 관절염과 같은 증상에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민간에서는 '점호제'라고 부르며 봄에 어린순을 채취해 나물로 이용하는 등 식품소재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 지란 '털진득찰'은 약간의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술과 꿀에 반죽해서 구증구포(九蒸九曝)(한약 재를 써서 햇볕에 말리기를 9번 거듭하는 것)를 활용해 복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23.5%)로서 주요 위험 요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0명중 30명(30.8%)꼴로 만성퇴행성 질환인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번 전임상 연구에서 키레놀 성분을 최소농도(10μg/ml)로 투여했을 때, 중치류(토끼)의 수축된 혈관을 48%이상 이완시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인재용 기자

## 이스타항공, 대학생 홍보서포터즈 1기 모집

이스타항공이 25일까지 대학생 홍보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

이스타항공 홍보서포터즈는 항공여행에 관심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홍보대사로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다. 홍보서포터즈로 선발되면 12월부터 4개월간 이스타항공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션을 통해 이스타항공 홍보

보마케팅 활동과 이스타항공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활동 종료 후 서포터즈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국내선 왕복 항공권이 제공되며, 최우수 활동자 1명에게는 국제선 왕복항공권도 함께 수여된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